

## 개원 44주년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주변에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올해로 우리 연구원이 개원 44주년을 맞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연구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행사를 치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연구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현재 ‘뉴노멀 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도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연구 의제 발굴과 수행, 연구방법의 변화, 업무 환경의 개선, 조직 개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를 주제로 올 1월에 열린 농업전망대회는 처음으로 이틀에 걸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으며, 역대 최다인 9,100여 명이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발표와 진지한 토론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 연구원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인 연구과제 수행과 현안 TF 운영, 이슈페이퍼 발간, 각종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환의 시기를 맞은 우리 연구원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연구원 개원 44주년을 맞아 연구원 가족 여러분과 다시 한번 연구원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원은 끊임없이 사회적 어젠다와 미래 농정과제를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잦은 이상기후와 가축 질병 발생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 등 개방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안 이슈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국가적 미래 정책 의제들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 내부 역량을 외부변화에 맞춰 적절히 재결집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빠르고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 연구원 구성원 모두가 과거를 답습하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앞선 성찰과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 균형 잡힌 판단, 속도감 있는 대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오는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이제까

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수요에 적극 대응해 왔듯이, 새 정부의 농업·농촌 분야 주요 공약인 ‘농업직불금 확대’,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주권 강화’,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농 육성’ 등의 연구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연구원은 「증장기능정의제연구단」, 「농업농촌 탄소중립연구단」,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 등의 연구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개될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이라는 새정부 농정기치에 걸맞은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원 차원의 활동과 더불어 연구자 개개인이 사회적 의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정책 기여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책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건강한 문화는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연구원은 여러 선배님들과 동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연구원만의 아름답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에 새로운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좋은 문화는 제승하는 한편, 불편한 인습이 되어버린 것들은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신설한 '청원게시판'의 올해 게시 건수가 이미 지난해의 30%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완해야 할 점은 있겠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연구원을 바꿔가려는 이러한 시도는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KREI이야기'도 참여와 소통을 통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세대간·직급간에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연구원의 문화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 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연구원 가족 여러분! 연구원 구성원으로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을 가집시다. 그리하여 우리 연구원이 농업·농촌, 지역사회, 코로나19의 종식을 갈망하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기념식을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연구원 주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홍상